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의 경제학자 100인이 전망한 2018년 중국경제

KIEP 북경사무소(ojh@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개요
2. 중국경제의 성장동력
3. 향후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201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지 40년째 되는 해이며,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등장한 '신시대(新时代)' 진입의 시작 구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중국경제시보(中国经济时报)가 저명 경제학자 100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자의 90%는 2018년 중국경제를 신중하지만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6.5~7.0%가 합리적 구간이라고 평가
-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질적 발전 △내수 촉진 △대외개방 △창업 및 제조 고도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중국경제의 질적 발전은 중국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자 방향이 되고 있으며,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50%를 상회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촉진을 동력으로 삼아야 함.
 - 중국은 '전면적인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혁신, 창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도화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꼽고 있음.
- 한편 중국경제의 향후 과제로 △공급측 개혁 심화 △시장화 개혁 촉진 △금융 리스크 관리 △민생문제 해결 등이 지적됨.
 - 공급측 개혁은 한계기업 퇴출과 공정한 환경 조성, 불필요한 비용 감소, 전시장 규제 해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 시장화 개혁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림자 금융부문 관리와 부채관리, 감독 강화 추진이 필요함.
 - 민생 문제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등 소득계층 비중 확대, 빈곤 퇴치, 환경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1. 개요

■ 201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지 40년째 되는 해이며,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등장한 '신시대(新时代)' 진입의 시작 구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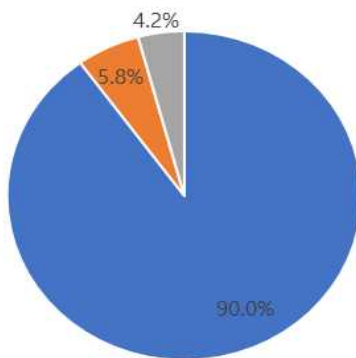
- 『중국경제시보』(中国经济时报)에서는 2018년 3월을 전후로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경제학자 100인을 대상으로 중국경제의 현안, 성장동력 및 과제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¹⁾

■ 중국 내 다수 경제학자들은 2018년을 질적 발전과 구조개혁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으며, 향후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 인터뷰에 참여한 학자의 90%는 2018년 중국경제를 신중하지만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5.8%는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함.

- 학자의 64.2%는 2018년 중국경제가 6.5~7.0%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30.8%는 6.0~6.5%를 합리적 구간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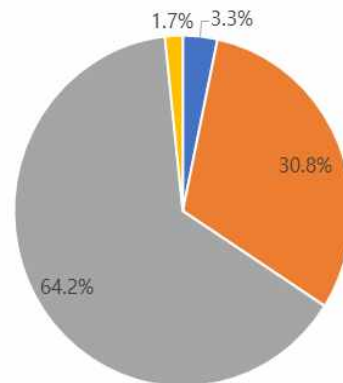
그림 1. 2018년 중국경제에 대한 태도



■ 신중한 낙관 ■ 매우 낙관 ■ 비관적

자료: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主报告』 기사 정리.

그림 2. 중국경제 성장속도의 합리적 구간



■ 5.5%~6.0% ■ 6.0%~6.5% ■ 6.5%~7.0% ■ 7.0%~7.5%

자료: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主报告』 기사 정리.

■ 중국경제학자들은 질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 △시장 활력 제고 △放管服(放管服) 개혁²⁾ △실물경제 활성화 △혁신과 창업(双创) △신형 도시화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그림 3 참고).

1) 본고는 해당 기사의 중국학자 인터뷰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며, 실제 회수된 설문지는 120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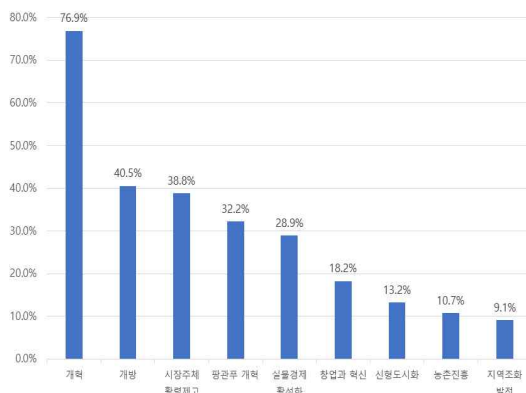
2)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을 통해 공정하며 효율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개혁

- 인터뷰 참여 학자의 약 77%는 중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낡은 체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현실에 맞는 '경제체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이어 학자의 40.5%는 개방이 중요하며, 38.8%는 시장주체의 활력 제고를 필수 요소으로 선정

■ 중국경제학자들은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으로 △금융리스크 △지방부채 △민영기업의 쇠퇴 △부동산 거품 △실물경제 위축 △빈부격차 등을 꼽았으며, 그중 금융리스크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요인으로 보고 있음(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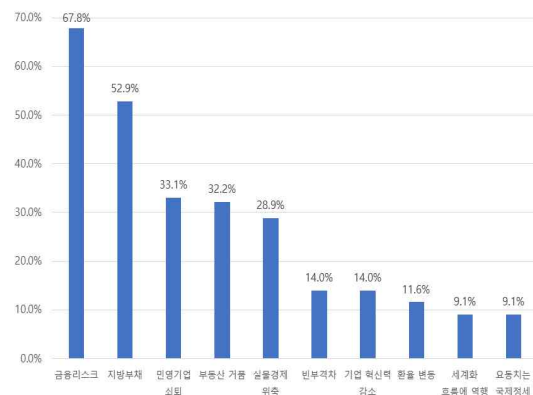
- 약 70%의 학자는 중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금융리스크를 향후 중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적함.
- 또한 금융시장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하며, 자본이 실물경제가 아닌 투기의 방향(脱实向虚)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을 강조함.
- 그밖에도 학자 52.8%는 지방부채를 위험요인으로 꼽았고, 민영기업 쇠퇴(33.1%), 부동산 거품(32.2%), 실물경제 위축(28.9%) 등도 중국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으로 선정됨.

그림 3. 중국 질적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



자료: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主报告』 기사 인용.

그림 4. 중국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



자료: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主报告』 기사 인용.

2. 중국경제의 성장동력

■ [질적 발전] 시진핑 집권 2기에는 경제의 질적 발전(高质量发展)을 성장동력으로 설정

-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식과 기술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해나가야 함.
- 인력자본, 물질자본, 기술자본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일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후장원(胡江云) 연구원은 ‘중국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규범에 맞는 시장질서 △신용체제 확립 △의법치국(依法治国) 건설 △공정한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
- 시장화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심사 강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투명성을 높임.
- 상하이 공학기술대학교 관리학원 차오하이민(曹海敏) 교수는 질적 발전을 위해 감독 제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개혁을 최적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산업구조 고도화, 혼합소유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함.
- 베이징 요톈(邮电)대학 경제관리학원 차홍왕(茶洪旺) 교수는 ‘경제의 활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시적 기반(微观基础)이 중요하며, 경제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의 거래비용과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이 정산을 일깨우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 칭화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양정(梁正) 부주임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살아나야 하며,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스마트제조’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함.
- 중국 실크로드벨리 연구소 량하이밍(梁海明) 수석경제학자는 혼합소유제 개혁³⁾을 통해 기업 경영에 다원화된 자본의 혼합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함.

■ [내수 촉진] 소비는 중국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촉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구조의 고도화가 진행 중임.
- 교통·통신, 교육·문화 등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경제와 같이 인터넷과 결합되며 나타난 소비 형태가 등장하고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의 귀춘리(郭春丽) 부소장은 실물경제 발전에 맞춰 신기술, 신패러다임, 신유망업종이 나타남에 따라, 소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복산업(幸福产业)’⁴⁾이 각광받고 있다고 평가

■ [대외개방] 중국은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세계 속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함.

- 2017년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27조 7,923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4조 6,691억 위안을 기록
- 그중 상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10.8% 증가한 15조 3,321억 위안, 상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18.7%

3) 국유기업에 국가 자본을 줄이고 민간 자본 유치를 허용하는 제도.

4) 중국의 소비 품목과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나타난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 예술, 여가, 실버, 교육 등의 산업을 행복산업이라 함.

증가한 12조 4,602억 위안을 기록

-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1조 5,407억 위안, 서비스 수입액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3조 1,584억 위안 기록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引进来)를 통해 고속 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투자(走出去)도 함께 중시해야 함.
-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제투자연구부 리우잉카이(刘英奎) 주임은 국제 무역분야의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자유치와 해외투자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은 현재 자유무역구(5)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방에 나서고 있으며, ‘제2의 홍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유무역항의 건설도 모색 중임.
- 시진핑 주석은 ‘하이난(海南) 경제특구 30주년 행사’에서 하이난성을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외국 자본에 대한 중국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금융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보험업 개방도를 높임.
- 중국 재정부수는 2017년 12월 “외국 투자자에 대한 세수 우대 정책(一项针对外国投资者的税收优惠政策)”을 발표하고,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거두어들인 이익금을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내의 348개 투자자 장려업종에 투자하면 원천징수세를 면제해줄기로 함.
- 제조업 전면 개방, 서비스업 점진 개방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서며, 이를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함.
- 상무부 전자비즈니스연구소 장리(张莉) 원장은 ‘산업은 기술 발전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망과 유기적 연결 관계를 맺어야 하며, 산업과 무역이 양호한 순환체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가행정학원 후민(胡敏) 연구원은 민간경제의 확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창업과 제조 고도화] 중국은 혁신과 창업을 의미하는 ‘쌍창(双创)’을 강화하고, 제조업 고도화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설정

- 중국정부가 2015년부터 ‘인터넷 플러스’⁵⁾와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본격화하고 창업에 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서 사회적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수가 크게 증가
- 투자가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내수시장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아 중국 내 유니콘 기

5) 중국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시작으로 2015년 3월 광둥, 톈진, 푸젠 등 3곳을 추가, 2016년 6월엔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산시, 쓰촨성과 충칭 7곳을 추가, 하이난성도 자유무역구와 자유무역항으로 추가될 예정.

6) 2015년 중국의 국가 전략으로서 모바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등의 인터넷 기술과 전통 제조업의 융합을 의미.

업(独角兽)⁷⁾ 수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면서 2017년 10월 기준 전 세계에 등록된 217개의 유니콘기업 중 중국 기업은 57개를 차지

- 중국 증권투자 기금협회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국내 사모펀드와 주식투자 방식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1만 2천여 명이고, 그 금액은 13억 위안에 달함.
- 미국 리서치 기관 cb insight에 따르면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 중국 기업의 비중은 2014년 12%에서 2017년 36%로 3배 증가
- 중국정부는 '선진제조(先进制造) 발전방향'에 맞추어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스마트 제조를 기반으로 한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13.5 계획'에도 이를 반영함.

표 1. 중국의 선진제조 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시기	문건	중점 발전 산업
2010년 10월	전략 신흥산업의 발전과 교육강화에 대한 결정 (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에너지 절약, 친환경, 차세대 IT 기술, 고부가가치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 (中国制造 2025)	차세대 IT 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 료기기
2016년 11월	13.5 국가전략 신흥산업 발전 계획 (“十三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	차세대 IT 기술, 고급설비, 신소재, 생물, 신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디지털혁신

자료: 저자 정리.

3. 향후 추진 과제

- [공급측 개혁 심화] 공급측 개혁과 관련하여 △한계기업 퇴출 △새로운 성장동력 배양 △실물경제의 원가 절감이 주요 과제가 될 것임.
-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을 추진하되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한 원칙과 기준 수립이 필요함.
- 실물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생산원가 절감에 필요한 세수, 에너지 등 부문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전시성 규제 해소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해나가야 함.

7)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업을 의미.

표 2. 공급측 개혁의 추진 과정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철강, 석탄 등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공급 과잉을 억제하여 산업 이용 효율을 높임. (과잉생산해소, 去产能)
2단계	부동산 재고를 2012년 수준까지 감소시킴. (부동산 재고 해소, 去库存)
3단계	레버리지율의 증가 속도를 늦추면서, 자산부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킴. (레버리지 해소, 去杠杆)
4단계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유효공급을 확대하여 장기 성장의 기반을 마련함. (원가절감 및 유효공급 확대, 降成本·补短板)

자료: 『中国金融四十人论坛』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시장화 개혁 촉진] 시장화 개혁의 핵심은 경쟁과 권익 보호를 중시하고, 자원 배분에 힘쓰는 것이며 중국정부는 실물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 추진 과제를 안고 있음.

- ‘팡관푸(放管服) 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사항을 간소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이에 대해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천찌옌(陈剑) 부소장은 ‘대내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팡관푸 개혁을 위해 기업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표 3. 팡관푸 개혁의 주요 내용

시기	목표
간정부권 (简政放权)	중앙 정부·기업의 기관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
방관결합 (放管结合)	정부가 규제 완화, 관리방식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심판 역할을 수행
우화복무 (优化服务)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 시장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함.

자료: 저자 정리.

- 수요와 공급에 맞는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화 △과학화 △효율화를 강화
- 중국 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迟福林) 원장은 시장화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와 기업 간의 신형 관계(新型政商)는 정부와 기업 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여 시장의 활력을 촉진해야 하며, 여기서 신형 관계는 “친(亲, 친밀한 관계)”과 “청(清, 각자 역할에 대한 정의 수립)”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금융리스크 관리]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림자 금융 관리 △부채 관리 △감독 업무 강화 등이 필요

- 그림자 금융⁸⁾부문이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커지면서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으며, 향후에는 레버리지 관리가 규범화된 대출제도를 확립하여 자금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대부분 대출에 의존했는데, 지난 수년간 진행된 유동성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로의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 자금 조달에 신탁대출 혹은 자산관리상품(WMP)⁹⁾ 등이 활용되면서 그림자 금융 규모가 크게 확대
- 중국의 총 부채율은 2017년 2/4분기 말 기준 GDP의 256%로 2008년 말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
- 국무원에 따르면 2018년 1/4분기 중국의 중앙국유기업(中央企业) 자산부채율¹⁰⁾은 65.9%로 전년 동기 대비 0.4%p 감소
- 산둥재정대학교 당대금융연구소 천화(陈华) 소장은 레버리지율 조절로 국유기업의 부채 수준을 감소시켜야 하며, 기업부문의 부채가 공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함.
- 재정수입 감소로 세수 부족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재정 개혁의 필요성이 증가
- 일부 지역에서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돈을 미리 당겨쓴다는 의미의 ‘인홀모랑(寅吃卯粮)’¹¹⁾이 유행
- 향풍은행연구원 동시마오(董希淼) 원장은 지방정부 재정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부채관리가 필요하며 은행 예대율의 조정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
-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은행·보험 감독기구를 통합했으며, 금융 감독을 조율할 수 있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감독체제를 강화시켜가고 있음.
- 중국인민은행 금융연구소 자오쉐칭(赵雪倩) 연구원은 향후 금융에서 ‘감독정책’이 제일 중요할 것이며,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라고 분석

■ [민생 문제 해결] 민생 문제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이 힘을 합쳐 △중등 소득계층 비중 확대 △빈곤 퇴치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

- 지속 발전을 위해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률 향상과 중등 소득계층의 비중 확대가 필요
- 인민대학 수도발전전략연구원 예위민(叶裕民) 연구원은 중국 ‘취업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력이 농업부문에서 벗어나 고효율을 가져오는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
- 중국은 올해 3,000만 명 규모의 탈(脫)빈곤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다원화된 사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간 빈곤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 금융기능을 수행하면서 감독과 규제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금융기관과 상품을 총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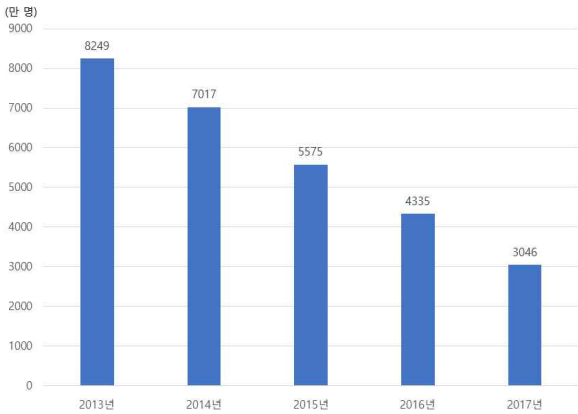
9) 신탁회사, 증권회사 등이 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자산관리상품(WMP) 형태로 유동화한 채권을 만들고, 이를 은행을 통해 판매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고금리가 특징임.

10) 기업 총자산 대비 부채 비중

11) ‘이듬해 식량을 앞당겨 먹는다’는 뜻으로, ‘돈을 미리 앞당겨 쓴다’는 비유적 의미가 있음.

- 중국 농촌지역 빈곤인구 수는 2013년 8,249만 명에서 2017년 3,046만 명으로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9 참고).
- 특히 중국은 양로와 의료보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지속하고 있음.
- 중국지역과학협회 샤오진청(肖金成) 복지원장은 빈곤 퇴치는 미래 3년간 중국의 중점업무이며, 농촌 빈곤인구를 감소시켜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림 5. 중국 농촌 지역 빈곤인구 추이(2013~17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환경보호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문제 개선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
- 중국정부는 환경보호 정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11월 기준 징진지(京津冀) 일대의 월평균 PM 2.5(지름 2.5 μ m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동기대비 37% 감소
- 중국 환경보호 핫라인(12369)에 따르면, 2017년 환경오염 발생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장쑤성이며, 신고 접수율이 많이 된 환경오염 분야는 대기오염으로 나타남.
- 중국 재정대학교 천보(陈波) 연구원은 환경 감독에 무엇보다 '수질오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환경 관리에 있어 중국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진단함.

표 4. 2016년 이후 발표된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

시기	목표
2016년 1월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2016년 4월	“환경보호와 공급측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 의견” 발표
2016년 7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평가법” 개정
2016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 해양보호법” 개정, “13.5 생태환경 보호계획” 발표
2017년 1월	“13.5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종합 업무 방안” 발표
2017년 6월	“수질오염방지법” 개정
2017년 9월	“13.5 휘발성유기물 오염방지 업무 방안” 발표
2018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 정식 시행

자료: 『国务院』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참고자료]

- 中国影子银行变迁史--全球央行双周志第6期, 2018. 『华创宏观』. (2月27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一」, 2018. 『中国经济时报』. (3月09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二」, 2018. 『中国经济时报』. (3月09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三」, 2018. 『中国经济时报』. (3月09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四」, 2018. 『中国经济时报』. (3月09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五」, 2018. 『中国经济时报』. (3月09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六」, 2018. 『中国经济时报』. (3月10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七」, 2018. 『中国经济时报』. (3月10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八」, 2018. 『中国经济时报』. (3月10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九」, 2018. 『中国经济时报』. (3月10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十」, 2018. 『中国经济时报』. (3月10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中国经济形势主报告」, 2018. 『中国经济时报』. (3月10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十一」, 2018. 『中国经济时报』. (3月12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十二」, 2018. 『中国经济时报』. (3月12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十三」, 2018. 『中国经济时报』. (3月12日)
- 「百名学者前瞻2018年经济形势之十四」, 2018. 『中国经济时报』. (3月12日)
- 「中国发展高层论坛2018, 总结40年经验 面对未来挑战」, 2018. 『中国经济时报』. (3月25日)
- 「供给侧改革这两年, 产生了哪些正负效应?」, 2018. 『中国金融四十人论坛』. (4月13日)
- 「负债成本抬升和供给放量下, 债市行情有待明朗」, 2018. 『华创债券』. (4月16日)
- 郭春丽, 王蕴, 易信, 张铭慎 2018. 「正确认识和有效推动高质量发展」, 『宏观经济管理』, 2018年第4期
- 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
- 중앙인민정부망(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
-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http://www.pbc.gov.cn/>.
- Wind Economic Database. <http://www.wind.com.cn>.

자료 정리: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양광모(hope8718@naver.com)